



주간 통일정세

2007-1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경제 관련

- **닭·오리농장 사료자동화 설비 구비 선전(11/24, 조선신보)**
 - 각 지역의 닭·오리공장에 사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설비인 ‘평사식(平舍式) 자동먹이흐름선’을 일제히 도입하였으며, 이 설비는 먹이 공급통과 사료 이송관, 전동장치, 먹이 통과구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북한에서 처음 만들어진 가금 설비라고 선전

- **만화영화 기술발전 소개(11/23, 조선신보)**
 - 3차원 컴퓨터그래픽(3DCG)으로 만든 만화영화를 잇 따라 내놓아 영상 기술이 ‘진화’하고 있다고 소개

- **은률광산 철광석 생산능력 증대 보도(11/21, 조선중앙통신)**
 - 황해남도 은률광산은 북한의 대표적인 철광석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서 박토(剝土) 파쇄장이 새로 건설돼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철광석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

- **‘4차원 우주탐험’ 프로그램 개발 보도(11/22, 조선신보인터넷판)**
 - 4차원 가상현실 기술을 응용한 컴퓨터 우주탐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우주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놀이의 요소를 더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도

- **유리속 입체형상 새김기술 개발 내용 소개(11/21, 조선신보)**
 - 국가과학원이 최근 유리속에 입체 형상을 새겨넣는 “3차원 유리속 새김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기술은 “벽돌 절반만한 크기의 광학 유리 에 레이저 빛을 쬐여 사람, 건물, 동물 등을 부각시켜 새겨넣는 기술”로서, “3차원 유리속 새김은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과 장치 제작 및 조종 기술에 의해 이뤄진다”고 소개

- **자원탐사 관련 대외적 협조 거부(11/21, 조선신보)**
 - “지하자원에 관한 문제는 나라의 발전 전망과 관련되는 주요 비밀이기 때문”에 “공업부문에선 국제적 협조가 이뤄질 수 있지만, 자원탐사에 관해선 일질 다른 나라와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



나. 김정일 동향

- 연이은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11/21, 11/2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군 제874부대를 시찰했으며
 - 이에 앞서 21일 인민군 제297부대 산하 중대들을 시찰하고 ‘혁명적인 군기 확립’을 강조했다.
 - 21일~22일 수행 간부들에 대해서 밝히지 않은 것은 다소 이례적임
 - 11월 말 현재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총 64건 중에서 시찰 및 군 관련 행사 21회(33%)외에 경제부문 활동 18회(28%), 대외활동 12회(19%), 기타활동 13회(20%)로 드러났음.
- 김정일, 원산청년발전소 건설현장 시찰(11/18,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 강원도 원산청년발전소 건설현장 시찰

다. 사상교양 관련

-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재활성화 움직임 보도(11/20, 노동신문)
 -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위력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제하의 노동신문 사설에서, “선군의 기치밑에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점령해 나가는 오늘의 총진군은 3대혁명 노선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의 계속이며 그 새로운 높은 단계”라며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즐기차게 벌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 당의 의도”임을 강조
 -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란 사상. 기술. 문화 등 3대혁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대중운동으로서 1975년 11월 노동당 중앙위 제5기 11차 전원회의 결의 후 동년 말 함경남도 검덕광산 켈기모임을 시발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우수단위를 선정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해 왔음.

라. 기타

- 조선시대 ‘현은산 日記’ 높이 평가(1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조선시대 문인 현적복(玄積福)의 일기인 ‘현은산 일기’에 대해 “역사연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있는 민족고전의 하나”라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 관련

- 북핵 6자회담 12월 6일 개최(11/22, 연합)
 - 북한의 핵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핵 6자



회담이 12월 6~8일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힘.

나. 북·미 관계

● 북·미 금융실무회의 많은 진전을 기대(11/20, 연합)

- 북미간 금융관계 정상화를 위한 금융실무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기광호 북한 재무성 대외금융담당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이번 회의에서 많은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다. 북·일 관계

● 日검찰, 조총련계 상공인 또 체포(11/22, 교도통신)

- 일본 교토(京都)지검은 22일 후쿠치야마(福知山)시의 조총련계 상사 임원인 서상목(72)씨와 마이쓰루(舞鶴)시 조총련계 상공회의 간부인 남도순(38)씨 등 조총련 동포 상공인 2명을 법인세 등 탈루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보도

라. 기타 외교 관계

● 반테러 국제적 협조 강조(11/25,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국제해사기구(IMO) 제25차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 단장은 지난 20일 연설에서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이라며 “해적·무장강도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국제적 협조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힘.

● 北외무성, 대북인권결의안 전면 불수용 입장 천명(11/22, 조선중앙통신)

- 북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우리는 위선자들이 꾸며낸 인권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거기에 담겨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강력히 단죄한다”고 천명

● 세계박람회기구 가입(11/21, 연합)

- 북한이 최근 세계박람회기구(BIE)에 가입, 곧 있을 2012년 박람회 개최국 선정 투표에서도 한표를 행사하게 된 것으로 알려짐.
-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9일 프랑스 외교부에 BIE 가입서를 기탁, 회원국으로 정식 등록됐다”면서 “북한도 27일 BIE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있을 2012년 박람회 개최국 투표에 참여할 권리를 얻은 것”이라고 언급



3. 대남정세

가. 대남관련

- **北민화협, 남한 측의 인권제기에 대한 비난(11/22, 북 민화협 대변인)**
 -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대변인은 남측의 대북인권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문제삼는 것은 “미국의 배후조종 밑에 핵문제 대신 인권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대북 적대시 책동을 계속 추구해보려는 남조선(남한) 극우보수 세력들의 계획적이고 공개적인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라고 비난

나. 남북교류

- **정부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의결(11/23, 연합)**
 - 정부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받기로 한 방침에 따라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를 의결.
 - 16일 남북총리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와 ‘남북경협공동위 구성. 운영합의서’ 및 ‘서해평화지대추진위 구성. 운영 합의서’ 등 3개 합의서를 심의. 의결
 - 3개 합의서 중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법 21조3항에 따라 비준동의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그러나 나머지 경협공동위와 서해평화지대추진위와 관련한 2개 합의서는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설명
- **北 서해유전 공동개발, 내달부터 협상(11/23, 연합)**
 - 김정관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개발본부장은 “다음달초에 열리는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북한의 서해안 유전 공동개발 문제에 대해 협상할 것이라고 언급
 - 김 본부장은 “북한 서해안 유전에는 우리나라 5년간 원유 소비량에 해당하는 40억~50억배럴 정도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
- **개성 화물열차 매일 1회 운영 (11/22, 연합)**
 - 남측의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개성공단 입구)을 오가는 경의선 화물열차가 다음 달 11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1회씩 운영
 - 또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남북 공동현지조사가 12월 12~18일 진행



- **남북, 철도 실무접촉 개성서 개최(11/20-21, 연합)**
 -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첫 남북회담인 남북철도 실무접촉이 20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 남북은 이날 접촉에서 다음달 11일 예정된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 개통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를 위한 현장조사 일정 등을 집중 협의
- **안동대마방직, 대북 물류사업 진출(11/20, 연합)**
 - 안동대마방직이 대북 물류사업에 진출,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은 20일 개성에서 북측의 새별총회사 리명준 총사장 등을 만나 북한 내륙 물류 운송 사업을 위한 차량 인수 조인식을 개최, 안동대마방직은 당분간 북한 내륙 물류 운송을 위해 트럭 20여대를 운영할 예정
- **정부, 북 조선단지에 직접 송전 검토(11/19, 연합)**
 - 정부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조선(造船)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한 안변·남포 지역에 남한에서 직접 송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 **北, 12월, 한달 간 개성공단 방문 제한(11/19, 연합)**
 - 북한이 12월 17일부터 한달여동안 개성공단 방문을 제한해줄 것을 남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이달 초 공단 출입 제한을 요청하면서 연말 연시에 사업을 결산하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언급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6자회담

- **6자회담, 베이징 개최(12/6~8)**
 - 북한의 핵시설 해체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 논의할 북핵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다(11/22).



나. 미·북 관계

● 「워싱턴포스트」, 「기획 탈북」 보도(11/18)

- 「워싱턴포스트」는 브로커들이 액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을 한국으로 탈출시키는 ‘기획 탈북’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탈출한 뒤 한국으로 들어오는 장거리 탈북의 경우 비용이 2,000달러 미만으로 저렴한 반면, 1만 달러 이상을 내야 하는 ‘1급 탈출’은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 베이징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직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시간이 3주 밖에 안 걸린다고 한국내 브로커들이 말했음.
- 이 같은 기획 탈북은 북한 경제가 악화되고 식량 배급체제가 거의 와해돼 뇌물을 받고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눈감아 주는 경비원과 하급 관리들이 많아짐에 따라 널리 이뤄지게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음.
- 이 같은 기획 탈북은 과거 주로 종교단체들에 의해 이뤄졌지만, 최근엔 한국에 정착한 북한군인 또는 보안요원 출신의 탈북자들이 브로커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음.

● 미, “6자 외교장관회담 꼭 연내 개최할 필요 없어”(11/19)

- 손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6자 외교장관회담을 꼭 올해 안에 개최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음.
-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연내에 6자 외교장관회담을 열 수 있도록 이달 말 수석대표회의 개최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미·북 금융실무회의, 폐막(11/19~20)

- 미·북간 금융관계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뉴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서 열린 미·북 금융실무회의는 생산적이었다고 미국측이 밝혔음.
- 이번 실무회의는 북한의 기존 불법 금융활동 근절과 향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북측에서는 기광호 재무성 대외금융담당 국장 등 6명의 대표단이, 미국 측에서는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자금 및 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참여했음.

● 부시, “북한 비핵화 불충분”

- 「아사히」(朝日)신문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11/16)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 “비핵화는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11/21)했음.
- 신문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조건으로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시설



의 불능화, 충분한 신고, 핵확산을 하지 않겠다는 보증 등 3가지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 미, 대북 중유 5만t 일측 부담분 대신 제공

- 미국은 6자회담 참여국들이 북한측에 제공해야 할 중유 공급과 관련, 순서상 일본이 부담해야 할 12월분 중유 5만t의 부담을 대신 맡기로 했다고 미국의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다(11/22).
- 북핵 폐기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한국 정부가 일본측 부담분을 맡으려 했으나 한·미간 협의과정에서 미국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는 바,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 의지가 큰 것을 의미함.

● 영변 핵시설 불능화 복원, 약 1년 소요

- 그레고리 솔츠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진전 상황을 토의한 IAEA 집행이사회(11/22)에서 “지난 3일 이후 기술전문가팀이 계속 영변에 머물며 북한측 기술자들과 5MW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에 대한 일련의 불능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합의된 불능화 조치들이 모두 완료되면, 이들 3개 시설들을 복원시키는 데에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미국은 본다”고 설명했다.
-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유럽연합」(EU)이 IAEA의 북한 핵시설 폐쇄 감시 및 검증업무 지원비로 180만 달러를 내기로 약속했음.

다. 중·북 관계

● 「워싱턴포스트」, “중국산 TV가 북 주민 개안”(11/21)

-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값싼 중국산 TV가 수십 년간 외부와 격리된 북한 주민들의 눈을 떠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중국 국경을 넘어와 북한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는 컬러 TV와 각종 불법복제 비디오, DVD 등이 ‘세상으로 향한 창’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라. 일·북 관계

● 일, 대북전략 재검토

-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11/16)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미·일간 연대에 의한 대북 압력’이라는 기존 대북전략의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음(11/20).



● **일, 대북 비공식 접촉 국장급으로 격상 방침**

-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본과 북한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비공식 접촉이 1개월 이상 단절됨에 따라 타개책으로 교섭 수준을 국장급 이상으로 끌어올려 협의 재개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보도(11/22)했음.

마. 기타 관계

● **유엔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11/20)**

-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로 채택했음.
- 우리 정부는 작년에 찬성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기권했음.

● **「파이낸셜타임스」, “북한 척박한 토양에서도 시장 씨앗 뿌리내려”(11/20)**

-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9면 전체를 할애한 분석 기사를 통해 최근의 북한 실상을 전하면서 “북한의 척박한 토양 하에서도 시장의 씨앗이 되는 화폐거래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보도했음.
- 이 같은 자본주의 시장체제의 맹아가 자칫 소규모이며 폐쇄적인 북한 경제 근간을 뒤흔들어 정권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음.
- 중국 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 가운데 20명 가량을 상대로 최근 두 달 사이에 실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북한의 라진과 회령, 신의주 등 접경지역에선 국경을 넘나드는 상당한 수준의 교환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 중국의 한 국경담당 관리에 따르면 1천 위안(약 12만원)만 있으면 중국에 가족이 없어도 북한인의 중국행이 가능함.
- 북한 당국도 이 같은 뇌물수수를 감지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 하기는 커녕 6개월 마다 국경관리 업무자를 교대하며 수입을 골고루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
- 없는 것이 없다는 회령시장에서는 품질이 좋은 남한 쌀을 구할 수 있는데, 쌀 1kg이 북한돈 900원으로 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 3천~4천 원임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수준이지만 실제 이곳의 교역은 화폐로 이뤄지고 있음.
- 북한 전문가인 중국 연변대 가오징주 교수는 “김 위원장은 주민 생존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있으나 자본주의의 확산 속도가 지나치다고 느끼는 순간 곧 바로 단속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북핵 불능화 4개국 참관단, 방북(11/27~29)**

-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은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개 나라의 전문가들이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 진행 상황을 참관하기 위해 3일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11/23)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미국 관계

● 내년 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확정(11/23)

- 제44대 미국 대선구도의 판도를 점칠 수 있는 뉴햄프셔주 예비선거(프라이머리)가 내년 1월 8일로 최종 확정됐음.
- 일반 유권자들이 아닌 당원 대표들이 참여하는 아이오와주 당원대회(코커스)가 내년 1월 3일로 확정된 것과 맞물려 미국 대선의 민심을 알 수 있는 두 대회 일정이 모두 확정됐음.

나. 중·일 관계

● 중 구축함, 2차대전 이래 첫 일본 입항(11/28~12/1)

- 「신화통신」은 중국 미사일 구축함 ‘선전호’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청으로 중국 건국이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보도(11/21)했음.
- 중·일 양국 지도자와 지난 8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일 수교 3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합의된 사안임.
- 중·일 군사교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양국 간 상호불신을 해소하는 의미하는 행사로 해석되고 있음.

다. 기타 관계

● 아세안 +3 정상회의(11/20)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11/21), 개최

- 노무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정상회담 및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특히 원 총리는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의 당사국으로서 향후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남·북·미·중 4자 정상선언에 대해 포괄적인 지지의사를 밝혔음.
- 이어 개최된 제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는 ‘기후변화,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및 북핵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의장성명이 채택되었음.